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5호 2026년 6월 28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	-----------	--	-----------	--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서상순 안나 (808) 285-2379
------------	---



오늘의 미사

연중 제13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열왕기 하권 4,8-11,14-16 ▶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 하오리다. ▶ 2독서 : 로마서 6,3-4,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이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 10,37-42
---	---

성가 ▶ 입당 : 291 ▶ 봉헌 : 221, 211 ▶ 성체 : 160 ▶ 파견 : 302

① 피터 앤 폴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6월 28일)

28일(일-본당행사 : 점심식사 있음)

② 7월 19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7월 봉성체 안내

7월 봉성체는 7월 16일(목, 오전) 서쪽 지역, 7월 17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7월 2일(목) 저녁 7시 미사와 함께 하는 성체강복 있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7월 19일~25일)

⑥ 매월 넷째 주 6월 27일(토), 28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장 14 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7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7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교리실

③ 하와이 카이 구역 모임

일시: 6월 28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④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7월 12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기타공지

■ **故 최영자 데레사 자매님의 장례미사에** 참석하시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유가족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 권지훈 베드로 신부님 영명 축일

6월 29일 월요일인 관계로 행사는 6월 28일(일)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하며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선물 용지는 예물 접수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납부 안내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아직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무금은 성당 운영에 소중히 사용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분간 제대꽃은 날씨 관계로 화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떡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윤금순 세실리아, 이샬린 바올라



헌금

7월 4/5일 Holy Father(Peter's Pence)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6월 20일/21일: \$16,218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289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276	\$3,500	-	\$9,442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 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STEADY AUTO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공지사항

※ 24대 사목위원회 명단(2026. 07. 01 ~ 2028. 06. 30)

- 사목회장 : 김성연 야고보
 - 남성 부회장 : 임공빈 야고보
 - 여성 부회장 : 김옥숙 데레사
 - 총무 : 박에릭 즈카리아
 - 서기 : 김정현 스텔라
 - 선교분과 : 성정숙 벨라뎃다
 - 교육분과 : 이영미 마리아
 - 소공동체분과 : 김진희 사비나
 - 전례분과 : 황채영 히야친타
 - 홍보분과 : 박영조 요한
 - 청소년분과 : 김지호 대건 안드레아
 - 시설관리분과 : 류정우 요셉
 - 재정위원장 : 천미연 오틸리아
 - 연령회장 : 서상순 안나
- ▶ 본당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자분들께서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시길 청합니다.

※ 가톨릭 하와이 200주년 기념(1827~2027)

- 2026년 7월 9일 : 평화의 성모 축일에 맞춰 200주년 기념 연도 개막 미사 개최
- ▶ 일시 : 7월 9일(목) 오후 6:00, 장소 : 성 데레사 성당
- ▶ 참가 신청은 아래 큐알로 해 주세요.



- 2026년 7월 ~ 2027년 7월 : 1년 동안 기념행사 진행
- 2027년 7월 7~9일 : 200주년 기념행사의 절정(대회 및 전례 행사)

※ 연중 13 주일 강론 요약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말에서도 드러나고, 욕심이 있으면 행동에서도 드러냅니다. 반대로 주님의 평화가 마음 안에 머물면 그 평화는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복음은 먼저 삶으로 전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범 여인이 엘리사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것도 그의 걸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느님의 향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경쟁입니까? 우리의 삶은 말보다 더 큰 설교가 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본당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 쉽고,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품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총을 받은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피아노 개인 레슨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